

#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변 우 열(Woo-Yeoul Byun)\*\*

이 병 기(Byeong-Ki Lee)\*\*\*

김 성 준(Sung-Jun Kim)\*\*\*\*

### 목 차

1. 서 론	3.5 평가의 쟁점정리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평가체제의 기본방향 설정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학교도서관 평가사례 분석	4.1 평가체제 개요
2.1 평가체제	4.2 평가목적
2.2 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4.3 평가주기 및 대상
3.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과정	4.4 평가방법
3.1 평가체제 개선과정	4.5 평가조직
3.2 현장의견 조사	4.6 평가절차
3.3 설문조사 분석결과	4.7 평가결과의 활용
3.4 전문가 의견	5. 요약 및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측면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재정적 조치와 연계되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school libraries in Korea. Major issue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were identified through school library evaluations and an analysis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of the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The issues include evaluation organizations, purposes of evaluation, selection of objects, evaluation period length, systems of evaluation, and ways to receive result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were selected through surveys and professional consult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more effective evaluation system which emphasizes the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n Korea.

키워드: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평가, 도서관 평가체제, 학교도서관 경영

School Library, Evaluation of School Library, Library Evaluation System, School Library Administration

\* 이 연구는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wybyun@kongju.ac.kr)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 전북 이리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hakdoman@gmail.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1년 1월 12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월 19일 계재확정일자: 2011년 1월 31일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5(1): 51-73, 2011. [DOI:10.4275/KSLIS.2011.45.1.051]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장서, 유능한 전문인력, 쾌적한 학습환경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나아가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모든 경영요소는 학교 교육, 학교도서관의 목적, 학생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계획, 조직, 통제, 관리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의 도서관 경영은 계획, 실행, 평가의 일반적인 경영원리에 따라 장서, 인적자원, 시설 등의 경영요소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이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에서는 2002년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도서관 발전의 큰 밑그림을 그렸고, 이후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시설, 장서, 인적자원과 같은 경영요소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학교도서관 경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본격적인 설치와 운영을 시작하였다. 즉, 이 시기는 학교도서관 경영의 ‘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지난 10여 년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사서교사는 단순한 자료의 이용을 넘어 정보활용교육의 장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은 점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 가고 있다.

지난 10년을 학교도서관 경영계획과 실행의

과정으로 정리한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학교도서관에 투입한 자원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음 단계의 학교도서관 발전을 이끌어야 하고, 단위학교는 그동안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학교도서관을 경영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경영성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발전계획과 단위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은 모두 학교도서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평가’이다.

전국차원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0년까지 세 차례의 평가가 실시되었지만 우수 학교도서관의 홍보와 모델제시라는 일부성과만 제시되었을 뿐 경영개선, 정책수립, 장학지도와 같은 평가의 본질적인 측면에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평가가 학교도서관 평가의 초기단계이며, 둘째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행·재정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기관에서 평가를 주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평가목적과 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평가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 실시되고 평가과정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학교도서관 경영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모든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평가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의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학교도서관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될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한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평가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2.1 학교도서관 평가사례 분석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규모의 학교도서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체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평가체제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로서 의의가 있으며, 전문성 높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해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도서관 평가를 주관함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평가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1.2.2 평가체제 개발을 위한 쟁점도출

학교도서관 평가는 학교도서관 경영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평가체제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학교도서관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목적, 평가주관기관, 평가대상 선정, 평가시스템, 평가주기,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다. 그리고 이상의 쟁점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탐색된 대안 중에서 현실성이 높은 소수 대안을 선정하였다.

### 1.2.3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에 참여한 현장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별로 초·중·고 사서교사 각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총 51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하여 평가체제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였다. 1차 회의에서는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조사하였고, 2차 회의에서는 제안된 평가체제 모형을 실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 1.2.4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모형 개발

기존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에서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도서관 평가가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평가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방안은 현장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해 정리되었

고, 그 결과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평가목적, 평가조직, 평가과정, 평가결과 활용방안, 평가체제 관리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전문적인 학교도서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중심의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학교도서관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평가체제의 장점을 새 평가체제에 다수 반영하여, 학교도서관 평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학교도서관 평가사례 분석

### 2.1 평가체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실시하였다. 이 평가 사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0).

#### 2.1.1 평가목적과 경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평가를 통해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높여, 보다 편리한

양질의 문화생활을 국민에게 제공한다.

둘째, 도서관 관종별 평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도서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성장을 제고한다.

이 평가체제는 모든 관종을 평가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시된 목적도 모든 관종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 관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성격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7년 도서관 운영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서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평가에는 관종별로 56개 도서관이 참여하였다. 2008년에는 전국규모로 확대되어 전체 2,319개 도서관이 참여했고, 이후 2009년에는 참여기관이 3,080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도서관을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시상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평가는 관종별 평가체제 구축, 평가대상 확대, 우수 도서관 시상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2.1.2 평가절차

평가대상 기관은 관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공모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우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평가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참여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을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입력한다. 평가위원회는 시스템에 입력된 평가결과를 심사한 후 공개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재입력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를 거쳐 서면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서면평가 결과 관종별로 수상기관의 4배수에 해당하는 상위 도서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장실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우수도서관을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개별 도서관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관의 평가결과를 열람한다.

#### 2.1.3 평가지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평가는 관종별로 도서관의 평가지표와 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은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시설·설비 75점, 자료 100점, 인적자원 75점, 정보·교육서비스 150점, 운영·예산 100점으로 총 5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는 2003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지표이다(김진숙 등 2003).

#### 2.1.4 평가결과 활용

개별 도서관에서 입력한 평가자료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그 결과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평가결과 공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관의 평가결과를 열람하여, 경영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평가결과는 우수 학교도서관을 선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009년의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도서관 1개관은 대통령 표창, 3개관은 국무총리 표창, 12개관은 문화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고, 수상기관 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였다.

## 2.2 평가의 성과와 문제점

### 2.2.1 성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한 학교도서관 평가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국가기관에서 다수의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평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 10,493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2,281개(22%) 학교도서관이 참여하여, 학교도서관 평가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둘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국내 도서관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도서관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료의 입력부터 평가처리, 입력결과 출력, 열람까지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도서관 평가의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0).

셋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는 200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한 지표를 적용하였고, 평가결과, 과정상의 문제,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이상복, 꽈철완 2009). 이와 같은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은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제시된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도서관 경영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 2.2.2 문제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을 위한 전문적인 평가목적과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평가목적은 도서관 경영성과에 대한 자체점검과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평가목적은 학교도서관 정책수립과 장학지도와 같은 평가의 본질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각 관종에 해당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목적의 설정은 향후 평가체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될 수 있지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목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정한 목적이 실효성을 잃기 때문에 이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평가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평가주관기관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주관기관은 평가목적 설정, 평가과정의 행정지원, 평가결과 활용 등 평가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현 평가체제에서 평가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이

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이한 조직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원활하게 실현되기는 어렵다.

셋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전체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학교도서관 평가결과가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도서관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거나, 평가에 참여할 표본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평가결과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방식은 평가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개별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같은 평가결과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 3.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과정

### 3.1 평가체제 개선과정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평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은 학교도서관 평가의 본질적인 측면인 경영개선이라는 관점과 현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평가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과정은 4단계로 요약된다.

1단계에서는 평가체제의 개선과 관련된 쟁점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 활용방안이다.

2단계에서는 각 쟁점별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주요 쟁점 중에서 평가목적을 설정하고,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고, 이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방법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평가주관기관,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각 의견에 대한 대안을 텁색하여 효과적인 소수 대안을 선정하였다. 1, 2단계를 거쳐 정리된 쟁점과 대안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정리된 쟁점과 소수 대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대안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좁혀나갔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평가체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시스템이며 각 내용에 대한 대안을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3.2 현장의견 조사

#### 3.2.1 설문조사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주요 인적자원은 사서교사와 담당교사(교과교사)로 구분된다. 이 중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대상은 현장의 사서교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표 1> 평가체제 개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

주요 쟁점	대안	특징	세부 안
평가주관기관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평가의 지속성 확보</li> <li>• 새로운 평가체제 구축의 낭비 줄임</li> <li>• 평가주관기관의 문제로 전문적인 평가체제 구축의 어려움</li> <li>• 평가결과 활용의 제한</li> </ul>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관과 학교도서관 주무기관의 일치</li> <li>• 학교도서관 평가의 본질적 목적달성을(경영개선) 용이</li> <li>• 평가과정의 강력한 행정력 확보가능</li> <li>• 행·재정적 조치와 연계된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가능</li> <li>• 새로운 평가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과 시행착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평가</li> <li>• 시·도교육청 자체평가</li> </ul>
평가목적	관련기관별 목적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목적은 평가의 방향제공</li> <li>• 평가주관기관과 밀접한 관련</li> <li>• 학교도서관 관련기관별 목적설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li> <li>• 시·도교육청</li> <li>• 단위학교</li> </ul>
평가대상 선정	자발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활용에서 업무담당자의 부담 감소</li> <li>• 전체 학교도서관 진단 및 비교분석 불가</li> <li>• 평가결과의 활용제한(예: 미흡도서관 지원)</li> </ul>	
	체계적 표본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과정의 효율성 제고</li> <li>• 체계적인 표본선정 기준 및 전문성 확보 전제</li> <li>• 경향은 파악은 가능하나 개별도서관에 대한 정보제공 제한</li> </ul>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과정의 효율성 낮음</li> <li>• 평가결과를 효율적 활용가능성 높음</li> </ul>	

〈표 1〉 평가체제 개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계속)

주요 쟁점	대안	특징	세부 안
평가주기	1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의 신속한 경영계획 반영</li> <li>• 업무담당자의 부담 증가</li> <li>• 큰 변화 없는 형식적 평가의 반복 가능성</li> </ul>	
	2년 단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와 경영계획의 반영주기가 길어짐</li> <li>•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업무담당자의 빈번한 변경<sup>1)</sup></li> </ul>	
평가시스템	기존 시스템 활용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li> <li>• 지난 3년간 평가결과와의 연속성 확보</li> <li>•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협의 전제</li> </ul>	
	신규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한 전문시스템 구축</li> <li>• 시스템 안정화까지 시행착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DLS와 연계</li> </ul>
평가결과 활용방안	관련기관별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목적과 일관성 유지</li> <li>• 평가결과를 행·재정적 조치와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li> <li>• 시·도교육청</li> <li>• 단위학교</li> </ul>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중요하다.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에 참여한 학교도서관은 모두 1,663개로 조사되었고, 이 기관의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통해 입수하였다. 평가참여자 중에서 사서교사만을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이들 명단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2010년 사서교사 주소록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를 각 1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다만, 지역별 사서교사 인원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도의 경

우 추가로 1명씩을 더 선정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2010년에 평가에 참여한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15개 교육청 소속 51명의 사서교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51명 중에서는 4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사서교사 18명(43.9%), 중학교 사서교사 9명(22.0%), 고등학교 사서교사 14명(34.1%)로 나타났다. 설립구분은 공립학교가 37명(90.2%), 사립학교가 4명(9.8%)로 나타났고, 교육경력은 1~3년이 9명(22.0%), 4~6년이 17명(41.5%), 7~9년이 10명(24.4%),

1) 평가주기를 2~3년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과 업무담당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평가실적 기간, 평가실시, 평가결과의 경영계획 반영주기가 최대 4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순환주기가 길게 된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가 4~6년을 주기로 전보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서 1~2회 정도만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교과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순환주기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자신이 업무를 맡았던 기간에 대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수년전의 경영성과를 새로운 업무담당자가 경영계획에 반영할 가능성도 낮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가주기가 길수록 경영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10년 이상이 5명(12.2%)으로 나타났다.

### 3.2.2 전문가협의회

학교도서관 평가체제는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계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체제와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 문헌정보학과 교수 3명, 학교도서관 전문단체 대표 1명, 현장의 사서교사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협의회는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평가주관기관에 대한 선호도와 그 이유, 그리고 평가 주체별 목적과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개선안으로 제시된 평가체제의 장단점과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제안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다.

### 3.3 설문조사 분석결과

#### 3.3.1 학교도서관 평가일반

이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목적, 평가의 장애요인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4.15로, 설문에 응답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평가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였다. 평가목적에서는 ‘C. 국가차원의 학교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이 4.17, ‘A. 학교도서관 경영진단 및 개선’이 4.07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평가의 장애요인에서는 ‘A. 형식적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3.78, ‘E. 평가와 경영 개선과의 관련성 부족’이 3.76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교도서관 평가는 형식적인 측면을 벗어나 국가차원의 학교도서관 정책개발과 단위학교의 경영개선과 같은 본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 학교도서관 평가일반 분석결과

(N=41)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1. 학교도서관 경영개선을 위해 평가는 필요하다.(평가 필요성 인식)	4.15	0.73
2. 다음은 도서관 평가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목적에 대한 중요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A. 학교도서관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에 참고하기 위해서	4.07	0.93
B. 우수 학교도서관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3.71	0.90
C. 국가차원의 학교도서관 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4.17	1.05
D. 학교도서관 장학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3.59	1.09
3. 다음은 학교도서관 평가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도서관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의 장애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A.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거부감	3.78	1.19
B.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강제성 부족)	3.32	1.19
C. 평가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부담	3.24	1.20
D. 좋지 못한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감	3.39	1.14
E. 평가와 경영개선과의 관련 부족(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3.76	0.97

비고: Likert 5점 척도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3.3.2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

이 영역에서는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평가에 참여한 계기는 ‘A. 경영성과의 자발적 확인’ 3.32, ‘B. 주변 및 관련기관의 권유’ 3.32, ‘C. 우수 학교도서관 조건 갖춤’ 2.95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과정에서 자료입력에 대한 업무부담은 평균이 2.73으로 업무부담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 평가지표가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평가자료의 입력 양이 많지 않고,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담당자의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평가시스템의 편리성은 평균이 3.44로 이 영역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재 운영되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지표의 합리성은 평균이 2.80으로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타당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경영계획 반영에 대한 조사결과는 평균이 2.93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평가 이후 경영계획 수립 및 보고와 같은 사후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자관의 경영개선을 평가목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평균이 3.05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현 평가체제는 업무담당자 편의성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학교도서관 평가가 경영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3.3.3 평가주관기관

이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평가주관기관으로 제시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선호도와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평가주관기관에 대한 선호도 분석결과는 총

<표 3>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의 분석결과

(N=41)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4. 다음은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2010년 학교도서관 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도서관 평가에 참여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A. 학교도서관 경영성과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자	3.32	1.19
B. 주변 및 관련기관의 권유로	3.32	1.23
C. 우수 학교도서관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2.95	1.00
5. 평가과정에서 자료입력에 대한 업무부담은 많았습니까?	2.73	0.78
6. 평가시스템(libsta.go.kr)은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까?	3.44	0.84
7. 평가내용(지표)은 합리적이며 공정하였습니까?	2.80	0.90
8.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경영계획 수립에 참고하였습니까?	2.93	0.82
9.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 평가가 도서관 경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05	0.89

비고: 척도 Likert 5점 척도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1명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31명(76%),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10명(24%)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선호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를 선호하는 10명은 ‘③교육과학기술부 주관시 예상되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활용의 부담감 때문에’를 가장 높은 이유로 지적하였다. 즉, 현 평가체제의 문제점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주관기관으로 설정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보다 선호한 것이다. 다음으로 41명 중 평가주관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선호한 31명의 선호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선호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서 ‘③행정적 지원확보로 집중적 및 체계적인 평가’가 16명(5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①학교도서관이 소속된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유’가 10명(32.3%)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도서관 평가의 체계성과 효과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선호한 31명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전체평가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전체평가는 18명(58.1%),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는 13명(41.9%)으로 나타났다.

### 3.3.4 평가방법

이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평가주기, 평가참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평가주기는 2~3년이 24명(5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학교업무의 특성상 유사한 업무를 학기 혹은 학년단위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하더라도 학교장, 예산, 담당 인력과 같은 학교차원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표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선호이유 분석결과

(N=10)

10-A. 평가주관기관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선호이유	빈도	백분율
① 현 평가체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1	10%
② 자율적 참여방식이 좋기 때문에	2	20%
③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시 예상되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활용의 부담감 때문에	5	50%
④ 기타	2	20%

<표 5> 교육과학기술부 선호이유 분석결과

(N=31)

10-B. 평가주관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선호이유	빈도	백분율
① 학교도서관이 소속된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이므로	10	32.3%
② 학교도서관만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5	16.1%
③ 행정적 지원확보로 집중적 및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16	51.6%
④ 평가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0	0%

〈표 6〉 평가방법 분석결과

(N=41)

설문 내용		빈도	백분율
11. 학교도서관 평가주기	① 1년	14	34.1%
	② 2~3년	24	58.5%
	③ 5년	3	7.3%
12. 평가참여 방식	① 자율적 참여	19	46.3%
	② 전체 참여	22	53.7%

학교도서관 경영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참여 방식은 자율적 참여가 19명(46.3%), 전체 참여가 22명(53.7%)으로 나타났다.

### 3.4 전문가 의견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평가주관기관 설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평가목적과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개발자들이 제시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와 누락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3.4.1 평가주관기관

설문조사 결과 사서교사들은 평가주관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였다. 6명의 전문가들에게 평가주관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5명의 전문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선호한 이유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행정력,

학교도서관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전문적인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목적달성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선호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평가를 주관할 경우 예상되는 경쟁의 심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평가주관기관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체제 모형을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전체평가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와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전체평가를 선호한 전문가는 전국규모로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시·도교육청별 비교평가를 통한 경쟁유도,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증대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를 선호한 전문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된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주체가 시·도교육청이라는 점, 시·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점, 학교도서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보장 및 인식제고를 선호이유로 제시하였다.

### 3.4.2 평가목적과 결과 활용방안

개발자가 구상한 평가목적과 결과 활용방안 이외에 추가할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문가가 제시한 평가목적 중 다수는 중복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나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제시된 대부분의 평가 목적은 개발자가 구상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 국가전체의 학교도서관 균형발전,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설정, 학교도서관 교육의 활성화와 같은 목적은 의미 있는 내용으로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도 평가목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개발자가 구상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 3.5 평기의 쟁점정리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발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평가주관기관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평가주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평가주관기관을 설정할 경우 세부 안으로 제시된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평가모형과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의 특징을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처럼 두 모형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부합하며, 학교도서관 평가가 관련법규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실질적 정책수단과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쟁점인 평가목적, 평가대상

〈표 7〉 평가목적에 대한 전문가 의견

기관	내 용	
교육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사명과 비전 설정</li> <li>• 우수 학교도서관 경영 인력 양성 방안 모색</li> <li>• 학교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 확보</li> <li>•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의 객관적인 자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li> <li>• 학교도서관의 현 상황 인식 및 관심 증가</li> <li>• 국가차원의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립</li> <li>• 전국 비교 평가를 통해 도·농간 학교도서관 간 균형발전 모색</li> </ul>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수준의 사명과 비전 설정</li> <li>•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li> <li>• 학교도서관 정책평가 및 활성화 유도</li> <li>• 지역 내 학교도서관 운영지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인력의 재교육 방안 모색</li> <li>• 낙후된 학교도서관의 발전계획수립</li> <li>• 시·도교육청의 소속 학교도서관 현황에 대한 인식제고</li> <li>•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자료제공</li> </ul>
단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학교 수준의 학교도서관 사명과 비전 설정</li> <li>•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개발</li> <li>• 학교도서관 경영 참여 인력의 역할 설정</li> <li>•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활용계획 수립</li> <li>• 학교도서관 운영지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요구파악 및 정보서비스 강화</li> <li>• 단위학교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li> <li>• 학교구성원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li> <li>•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자료 제공</li> </ul>

〈표 8〉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평가 모형과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의 특징

구 분	특 징	비 고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평가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체제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li> <li>• 평가결과의 일관성 확보</li> <li>• 학교도서관 발전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건전한 경쟁유도</li> </ul>	
시·도 교육청 자체평가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자치에 부합</li> <li>• 학교도서관진흥법과의 일관성 유지</li> <li>•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 확보로 평가결과의 효과적 활용 가능</li> <li>• 평가체제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li> <li>• 형식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필요</li> </ul>	최종 모형으로 선정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표 9〉와 같이 생점을 정리하였다.

### 3.6 평가체제의 기본방향 설정

학교도서관 평가와 관련된 주요 생점을 정리한 후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목적지향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관련기관 별로 평가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정된 목적달성을 적합하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학교도서관 평가가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평가체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한다. 새로운 평가체제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자체평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책무성 강화방안을 동시에 제시

〈표 9〉 기타 생점 정리

구 분	최종 대안	이 유
평가목적	평가목적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로 분명한 평가목적 제시</li> </ul>
평가대상 선정	전수조사 (시·도교육청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주관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로 설정되어 전수조사의 행정적 지원확보 가능</li> <li>• 개별 학교도서관 지원 및 예산분배와 같은 평가결과의 효율적 사용 가능</li> <li>• 효과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수조사에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 가능</li> </ul>
평가주기	1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성과의 신속한 경영계획 반영</li> </ul>
평가시스템	기존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의 우수성</li> <li>• 기존 학교도서관 평가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자료 누적가능</li> <li>• 신규시스템 개발에 따른 낭비와 시행착오 예방</li> </ul>
평가결과 활용 방안	결과 활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로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시</li> <li>•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조치와 연계</li> </ul>

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넷째,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전체 학교도서관 평가를 지향한다. 비록 새로운 평가체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체평가 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전국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교도서관 평가를 지향한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을 강화한다. 새로운 평가체제는 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재정적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평가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평가대상 학교와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4.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sup>2)</sup>

##### 4.1 평가체제 개요

새로운 평가체제는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소속 학교도서관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개요는 <표 10>과 같다. 이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모형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 평가가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평가체제를 관리할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체제의 관리는 중앙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도서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평가관련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중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4.2 평가목적

학교도서관은 중앙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의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 소속된 기관이다.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이들 기관들의 목적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최상위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관 평가목적은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질적수준 향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2) 평가체제에서 평가지표는 평가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평가체제 개발과정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 현장 사서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지만 세부내용은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며, 이 연구는 평가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체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표 10〉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모형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주체	• 시 · 도교육청
평가위원회	• 시 · 도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평가단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와 시 · 도교육청 협의로 구성
평가대상	• 시 · 도교육청 소속 국 · 공립학교도서관(의무) • 사립학교도서관(자율) • 16개 모든 시 · 도교육청이 참여하여 전체 학교도서관의 평가 유도
평가시스템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활용(교육과학기술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협의)
평가체제 관리주체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장점	•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자율성 보장 • 평가결과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 높음
전체 사항	• 평가체제의 관리방안 마련 •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해 시 · 도교육청에 예산 지원 • 평가의 실효성 확보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 · 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평가 반영
평가결과	• 시 ·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평가결과 보고서 • 전국 평가결과는 평가시스템에 누적 •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시 · 도교육청 간 평가결과의 우위 비교 없음

〈표 11〉 학교도서관 평가목적

구 分	평 가 목 적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도서관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킨다. • 학교도서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시 ·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평가 및 활성화를 유도한다. • 학교도서관 관련연구와 여론형성의 객관적인 틀을 제공한다. • 국가수준의 우수 학교도서관을 홍보하고 모델을 제시한다.
시 · 도교육청	• 지역 학교도서관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킨다.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도서관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 단위학교 평가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지역의 우수 학교도서관을 홍보하고 모델을 제시한다.
단위학교	• 표준화된 도구로 학교도서관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 학교도서관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시 ·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정책평가 및 활성화  
유도, 학교도서관 연구와 여론형성의 정보제공,  
국가수준의 우수 학교도서관 홍보로 구분된다.  
시 · 도교육청은 지역의 학교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시 · 도교육청의 학교도서

관 평가목적은 지역 학교도서관의 질적수준 향  
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발전계획 수  
립, 학교도서관 지원정책 수립, 단위학교 평가  
의 참고자료 제공, 지역 우수 학교도서관 홍보  
로 구분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한다. 학교도서관 평가는 단순히 학교도서관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평가목적은 경영성과 분석과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구분된다.

#### 4.3 평가주기 및 대상

학교도서관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되며, 평가실적은 전년도(3월 1일~2월 28일)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대상은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시·도교육청 소속 국·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하되,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한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공·사립 학교도서관 총 수는 10,493개관이며, 이 중 국·공립 학교도서관은 8,929개관이다(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0).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학교도서관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 4.4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평가로 구성된다.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학교에서 평가지

표에 해당하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형적인 보고서 형태의 평가자료는 작성자의 업무부담, 오류 가능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서면평가는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현장실사 평가는 서면평과를 통해 산출된 결과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학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사 평가의 대상학교는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에서 결정하되, <표 12>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 공고시 현장실사 평가 대상학교의 선정범위를 공지하고, 현장 방문시 점검할 내용을 사전에 대상 학교에 안내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4.5 평가조직

##### 4.5.1 평가체제 관리위원회

평가체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의 평가체제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학교도서관 관련법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평가

<표 12> 현장실사 평가 대상학교 선정기준 예시

구 분	선정 기준
매우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평정결과와 2등급 이상의 차이로 '매우 우수' 등급에 포함된 학교도서관</li> <li>• 우수 학교도서관 선정대상의 2배수</li> </ul>
매우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평정결과와 2등급 이상의 차이를 보여 '매우 미흡' 등급에 포함된 학교도서관</li> </ul>

체제 관리위원회는 중앙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체제 관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평가를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평가결과 보고서와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체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4.5.2 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최고위원회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소속 학교도서관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교도서관 자료의 제작·폐기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은 해당 교육청 소속의 학교장, 소속 공무원, 학부모, 도서관 및 관련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9~11명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목적에 부합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겸한다.

학교도서관 평가위원은 사전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평가위원은 평가내용과 절차에 대한 교육,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평가의 수행과 점검, 평가결과 협의, 평가과정의 이의내용 검토 및 협의,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4.5.3 평가단

평가위원회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6명 내외의 단일팀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예산, 기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위원회의 역할수행을 위한 실무인력을 지원한다.

평가위원회 평가단 구성원은 학교도서관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분야의 전문성을 신장해야 하고, 평가과정의 비밀유지, 평가결과 보고, 청렴의무 등을 지닌다. 평가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평가매뉴얼에 따라 사전연수와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 4.6 평가절차

학교도서관 평가는 평가기획, 평가실시, 평가종료, 평가결과 활용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과정의 세부 흐름은 <표 13>과 같다. 특히, 평가실시 단계에서 서면평가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소속 학교도서관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는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개별점수 뿐만 아니라 전체 점수를 등급으로 표시하여 자판의 절대수준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평가가 최종 종료되면 시·도교육청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의 보고서를 평가체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 열람 정보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한다.

〈표 13〉 평가절차

절차	세부 절차	
평가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 평가단 구성</li> <li>• 평가절차와 방법을 확정 후 공고, 평가매뉴얼 및 연수자료 제공</li> </ul>	
평가실시	1차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도서관 업무담당자는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전년도 실적자료를 준비</li> <li>• 학교도서관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자료를 입력</li> </ul>
	2차 서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서면평가에 불참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서면평가 실시(1차 서면평가와 동일)</li> </ul>
	서면평가 결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이 시스템을 통하여 서면평가 결과 산출 및 확정</li> </ul>
	서면평가 결과열람 및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에 참여한 학교도서관에서 서면평가 결과 열람</li> <li>•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li> </ul>
	서면평가 최종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서면평가 결과 최종 확정</li> <li>• 현장실사 평가대상 학교 선정 및 발표</li> </ul>
	현장실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단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li> </ul>
평가결과 평정 및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li> <li>• 평가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제출</li> <li>•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출</li> <li>• 평가결과 공개(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및 자관 평가결과 열람</li> <li>• 평정등급 예시(평가결과 점수는 평가지표의 배점(총점 100점) 중 취득한 점수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우수: 점수가 90/100 이상</li> <li>- 우수: 점수가 70/100 이상~90/100 미만</li> <li>- 보통: 점수가 50/100 이상~70/100 미만</li> <li>- 미흡: 점수가 30/100 이상~50/100 미만</li> <li>- 매우 미흡: 점수가 30/100 미만</li> </ul> </li> </ul>	

#### 4.7 평가결과의 활용

##### 4.7.1 평가결과의 활용방향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결과의 활용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결과는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본질적 목적에 중점을 두어 활용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의 활용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제시된 평가목적에 적합한 세부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장학지도와 자원분배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정책설정에 있어서 우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미흡한 학교도서관에 대한 배려정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단위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학교도서관 관련기관들의 현실이해를 돋고, 자율적인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도서관 평가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국가 통계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

관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시한 방향이다.

#### 4.7.2 세부 활용방안

평가결과의 세부 활용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로 종합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도서관 평가결과의 공개,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평가 반영, 국가수준의 우수 학교도서관 지정 및 홍보 등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평가결과를 학교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의 참고자료, 학교도서관 관련자원의 분배 및 지원기준, 학교도서관 장학지도 및 컨설팅, 지역 우수 학교도서관 지정 및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위학교는 평가결과를 열람하여 자관의 수준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학교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수립이 학교내부의 역량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 경영컨설팅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평가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 5.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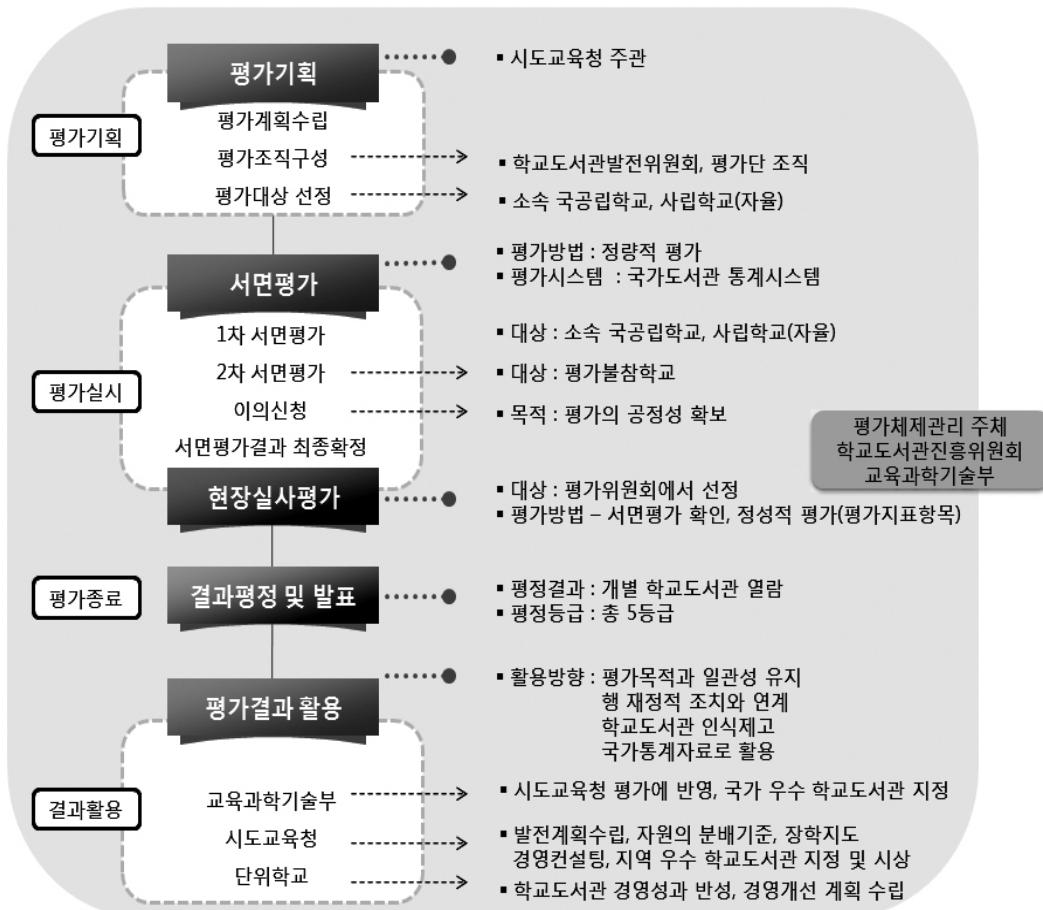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평가체제는 최초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로서 의미가 크지만 학교도서관을 위한 전문적이며, 실효성 있는 평가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주관기관의 설정, 평가목적 설정, 평가대상,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부각된 쟁점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평가에 참여한 현장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도서관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

〈표 14〉 평가결과의 세부 활용방안

구분	세부 활용방안	예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평가결과 공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통한 현황공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평가 반영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도서관 평가내용포함
	국가수준의 우수 학교도서관 지정 및 홍보	국가 우수 도서관 지정, 우수학교 및 담당자 시상 (장관표창, 해외연수)
시·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 결과보고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자원분배 기준	사서교사 배치, 장서구입비, 목적사업비 등
	학교도서관 경영개선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등을 통한 경영컨설팅제공
	지역의 우수 학교도서관 지정 및 홍보	지역 우수학교도서관 지정, 벤치마킹 모델 제공, 교육감 표창
단위학교	자관의 문제점 확인 및 학교 구성원의 인식제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학교도서관 경영개선	경영계획수립 및 보고, 경영컨설팅 요청



〈그림 1〉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 모형

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평가주관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전체평가 모형보다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이 많은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교도서관 평가체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체평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평가목적은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

따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정하였다.

셋째, 평가대상은 시·도교육청 소속 국·공립학교는 의무참여, 사립학교는 자율참여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넷째, 평가주기는 1년 단위로, 평가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협의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섯째,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은 평가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의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은 목적지향적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체제 구축,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전체 학교도서관 평가 지향,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평가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평가체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소속 학교도서관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모형으로, 평가계획, 평가실행, 평가결과 처리, 평가결과 활용 등의 제반과정이 모두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모형을 통해 그동안 주로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의존하던 학교도서관의 경영방식이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경영체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시된 평가체제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는 후속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0.8.30].  
 <<http://www.libsta.go.kr>>.
- [2] 김진숙 외. 2003. 『학교도서관 평가 적용 및 교육적 효과 측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0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계획』. [online]. [cited 2010.8.30].  
 <[www.libsta.go.kr](http://www.libsta.go.kr)>.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전국도서관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5] 이상복, 곽철완. 2009. 『09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지표연구』. 서울: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 [1]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Gukka Doseogwan Tonggye Siseutem." [online]. [cited 2010.8.30]. <<http://www.libsta.go.kr>>.
- [2] Kim, Jin-Suk et al. 2003. *Hakgyo Doseogwan Pyeongga Jeogyong mit Gyoyukjeok Hyogwa Cheukjeong Yeongu*. Seoul: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2010 Jeonguk Doseogwan Unnyeong Pyeongga Gyehoek,” [online]. [cited 2010.8.30].  
⟨www.libsta.go.kr⟩.
- [4]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9. *Jeonguk Doseogwan Unyeong Pyeongga Gyeolgwa Bogoseo*[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5] Lee, Sang-Bok & Gwak, Cheol-Wan. 2009. *09-nyeon Jeonguk Doseogwan Unyeong Pyeongga Jipyo Yeongu*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